

인생에서 일이 꼬이고 지연될 때

성경말씀: 행25:1-12

인생에서 일이 꼬이고 연기되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잘 인내하지 못한다. 버스, 전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
사회가 심히 빨리 변한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단12:4). 이리저리 달음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특히 요즘 우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이 정지한 느낌
과연 끝이 날까? 언제 끝이 날까?

오늘 설교에서는 일이 꼬이고 연기되는 것을 딜레이(delay)라고 하겠다.

위어스비 목사의 증언: 딜레이는 인생의 일부분, 아이들은 어려서 모른다. 폐를 쓰면 부모가 OK

딜레이의 종류: 잠정적인 딜레이, 장기적인 딜레이

결혼, 직장, 사역, 입학, 병 고침, 국가 문제 등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기다리고 기다린다. 딜레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해도 안 된다. < >

사도 바울의 딜레이

사도 바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도착, 붙잡혀서 공회에서 심문을 받음.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함. 총대장이 밤에 그를 가이사라로 데려감, 거기에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있음, 가이사
라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 해룻 대왕이 모든 것을 정비하여 사람이 살기에 좋은 휴양 도시, 전차
경기장 등,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빼고는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행24:27, 그는 2년 이상 가이사라에 거함, 그러는 가운데 총독이 바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그는 사도, 파송 받은 자, 해야 할 일이 있다. 특히 로마에 속히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일이 꼬이고
무한정 연기되고 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실수

행12 베드로 감옥에 갇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구출해 주신다.

그런데 가이사라 감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행16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힘, 금방 구출됨

가이사라 감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모든 일이 꼬여서 연기되는 삶을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배우려 한다.

어떤 사람들의 말: “목사님, 내 인생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버튼만 누르면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어
요. 아직 인생을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들에게도 딜레이가 닥칠 날이 올 것이다.

성도의 삶에 딜레이가 없다는 것이 그가 성숙한 사람임을 입증하지 않는다. 바울의 경우를 보라.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서 그런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기다림의 교훈을 배웠다.

1. 딜레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딜레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짠다.

여행을 가려고 한다. 첫째 날, 둘째 날, , , , 9시, 10시, 11시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짠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일이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한다. 우리는 딜레이를 계획하지 않는다. 교통 체증, 자동차 고장 등으로
일이 꼬일 때가 있다. 이러면 화가 치민다. 성화를 잃어버린다.

특히 왜? 지금 시대는 초고속 시대, 모든 것이 고속으로 이루어진다.

택배 배달, 주문하고 하루 이틀 뒤에 받는다. 지금은 저녁에 주문하고 다음날 새벽에 받는다. 그런
회사만 살아남는다. 아마존 쿠팡 등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유: 딜레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우기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생에서 무언가 일이 꼬이고 딜레이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딜레이를 창조 세상에 심어놓으셨다.

봄에 벼를 심으면 가을에 가야 추수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아름다운 나비를 보라. 나비를 그리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알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은 오래 걸린다. 알에서 유충, 네 단계의 애벌레 과정, 탈피하여 번데기가 된다. 그리고 성충 나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은 창조 세상에 딜레이를 숨겨 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어떤 때에는 딜레이가 생긴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달리면 몸이 망가진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딜레이가 생긴다.

1. 모세를 보라. 이집트의 왕자, 지식과 지혜를 갖추,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출할 모든 계획을 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음.

그는 거기서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심지어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2.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었다. 치리자가 되는 꿈,

그런데 그는 17살에 형들에 의해 팔려서 이집트에 내려가 종이 됨

13년 동안 고생한 뒤 총독이 됨, 자기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함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또 여러 해를 기다림

3. 다윗도 마찬가지, 그는 베들레헴의 어린 목자, 17살경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30세, 13년 동안 그는 피폐한 유대 광야에서 쪽잠을 자며 원수들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4.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여자의 씨 메시아 약속(창3:15), 무려 4000년을 기다렸을 때에 그분이 오셨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5.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라. 많은 딜레이와 기다림이 있었다.

요11장, 나사로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전보: 나사로가 아픕니다(3). 주님께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이들을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로 감(6), 마르다의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21).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39)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서 종종 일을 연기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딜레이는 우리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 휴식이다.

유명 음악인 음악회, 송도 아트센터, 백건우 피아노 독주회, 1시간 반 쯤 진행함. 그런데 40분쯤 지나니까 15분 휴식입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된 것이다. 연주자, 그 외 모든 사람들 잠시 쉬고 땀을 닦고 휴식을 해야 다음 40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 프로그램을 방해해서 중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 연주자를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딜레이는 방해가 아니라 중간 휴식이다. 계획된 것이다.

2. 딜레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다.

음악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지휘자. 연주자가 모든 것을 재정비한다. 심지어 관객들도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 후반부 음악을 모두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중간 휴식을 갖게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계획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그는 30세경(AD34년경)에 회심, 1차 선교여행 AD 47년, AD 57년경 3차 선교 여행 뒤 예루살렘에서 붙잡힘, <https://www.blueletterbible.org/study/paul/timeline.cfm>

바울: 회심 이후로 10년 정도의 선교 여행을 포함해서 약 23년 동안 열심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 선포, 그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 하였다. 이것이 그의 계획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보고 2년 이상 가이사랴에서 폭 쉬라고 하신다.

바이올린 주자가 중간 휴식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주하면 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튜닝 필요

딜레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바울의 삶을 보자, 행20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저기로 가려고 작정하고 그 일을 감행한다(행20:23-24).
그리고 가이사랴에 간다. 빌립 등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나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21:11).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가 저기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의 비전: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가는 것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붙잡히고 만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가이사랴로 되돌아온다. 가이사랴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
차이점: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로 온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신다. 그의 자유 의지를 꺾지 않으신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간섭하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하신다.
예루살렘에서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

행 23장 1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도 가서 증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바울이 확신한 것: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그가 로마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기계와 같이 유동성이 없다는 말을 믿지 말라.
기계에서 한 두 개가 고장 나면 기계는 기능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목사님,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그만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자비한 기계 혹은 숨이 없는 기계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 한 부분이 일을 못하면 다른 부분이 한다.
맹장을 떼 내고 쓸개를 떼 내면 다른 부분이 대신 한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유기체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면에서 바울은 그분의 뜻을 망쳐 놓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러나 그는 갔다. 그러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 결과 그는 2년 이상을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로마로 간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인생에서 일이 꼬이고 계획이 연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바울의 경우 4가지 목적이 달성되었다.

1. 바울은 육적으로 몹시 쇠약한 상태, 그는 원기를 회복해야 했다. 이대로는 로마에 가지 못한다.
고후11장 23-28을 보라. 바울의 고통과 아픔, 육신적으로 만신창이
그는 지금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시103:14). 먼지이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그대로 로마로 가면 곧바로 죽는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잠시 동안 쉬어야 한다.
하나님의 딜레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말: 목사님, 그런데 마귀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쉴 수 없습니다.
1. 마귀는 나의 본보기가 아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조용한 데 가서 쉬라고 하신다.
2. 마귀는 우리처럼 몸이 피곤하지 않다. 두통, 치통, 아픔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3. “바울아,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쉬면서 지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돈도 안 든다. 로마 정부에서 다 돌보아 줄 것이다.”
육체적 안식을 위해 바울에게 딜레이가 필요하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중도 쉬어야 한다.

2. 그에게 영적인 휴식이 필요하였다. 회심 후 23년 동안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특히 세 차례 선교 여행 다니면서 한 도시에 계속 머문 적이 많지 않다. 가장 길게 머문 곳 에베소(2년 반 정도), 고린도(18개월), 그 외에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녔다.

가이사라에 머물러라. 고넬료. 빌립 등 크리스천 친구들

행24:23,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게 함, 그가 방문하게 함

minister 이전에 노를 짓는 배, 배 밑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노를 짓은 노예들, 그의 친지들이 그를 대신하여 노를 저어 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적 회복을 위해 이런 기간을 주신다. 그는 지난 23년 동안 자기 자신을 주고, 주고, 또 주었다. 가이사라에서 2년 이상 거하면서 그는 친지들에게 공급을 받으며 쉬었다.

3. 바울이 가르친 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이런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

로마서 5장 3-4절, 그는 계속해서 인내를 강조한다.

바울아, 네가 선포한 것을 실천하라.

4. 하나님의 계획 성취

행9장 15절: 그는 치리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치리자들에게도 전해야 한다(국회의원)

가이사라 로마 병사들, 이들에게 복음 선포, 친지들 방문

빌립보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카이사르 집안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파

24장의 벨릭스 총독과 그의 부인에게, 26장의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 선포

이런 딜레이 기간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다.

4. 딜레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약속

산헤드린 공회 이후 주님이 밤에 나타나심(행23:11)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다.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간다.

가이사라: 그는 아무 편지도 쓰지 않았다. 그저 주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며 살았다.

빌4:11-12,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움

이 설교를 듣는 분: 직장, 결혼, 학교, 병 고침, 마음 아픔, 지금까지 기다리며 기도해 왔다.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바울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 내가 너를 로마에서 만나리라.

그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다.

마귀의 속삭임, 네가 순종했으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 동족들이 틈만 나면 그를 죽이려 함

바울이 묵상한 성경 말씀,

아마도 시37:1-9

바울은 이런 시편을 수십 차례 읽고 묵상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다. 기도 목록, 오래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다.

주님의 말씀: “나한테 맡겨라. 내가 처리할 것이다.”

오늘 본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가 왜 카이사르에게 호소했나요?

모든 로마 시민의 특권: 문제가 생겨서 하급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일이 안 풀리면 곧바로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로마에서 너를 만나겠다.

지금 총독의 인도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거기서 죽게 생김,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호소함, 생명을 연장해서 로마로 가려고, 카이사르에게 호소한다.

그러면 즉시로 로마 시민의 모든 일은 총독의 손에서 벗어나 카이사르에게 넘겨진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카이사르가 잘못된 판정을 내리면 즉시 죽을 수도 있다.

행25:11, 이 말을 함으로써 바울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삶을 제단 위에 올려 놓은 것이다.
로마에 가서 그는 옥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

옥중 서신들을 기록함,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2장, 딤후, 빌레몬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은 이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유럽으로 전달함.

그 결과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미국을 거쳐 우리에게 옴
카이사르에게 청원(호소)한다는 것의 의미: 내 삶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희생물로 바칩니다.

누가의 기록 하나는 누가복음,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누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사도행전: 바울이 옥에서 순교하려고 로마로 올라간다.

결론

딜레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간이다. 초조할 때가 있다. 약속을 믿으라.

딜레이는 음악회의 중간 휴식 기간, 이것이 끝나면 또 다시 음악의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마찬가지로 이런 딜레이 이후에 우리에게 인생의 하모니가 올 것이다.

1. 딜레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거절하지 말고 수용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
2. 딜레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다.
3. 딜레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한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성경에서 딜레이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큰 딜레이를 보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
벧후3:3-4, 9를 보기 바란다.

왜 하나님이 딜레이하시는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벧후3:9).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더 연기되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속히 오시기만을 기도한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영접하여야 한다.

이제 그 딜레이가 끝날 때가 오고 있다. 주님을 신뢰하자.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준동, 직업, 병, 마음의 상처 등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렘29:11